제 1153 호 1991년 11월24일 창간 2014년 2월 16 일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행 동 지 침†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마태복음 강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마 12:1-8)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명쾌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1.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출 20:8).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온전히 안식하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39가지로 규정해 놓고 각 규정에 6가지 씩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234가지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이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어느덧 사람들의 올무가 되고 정죄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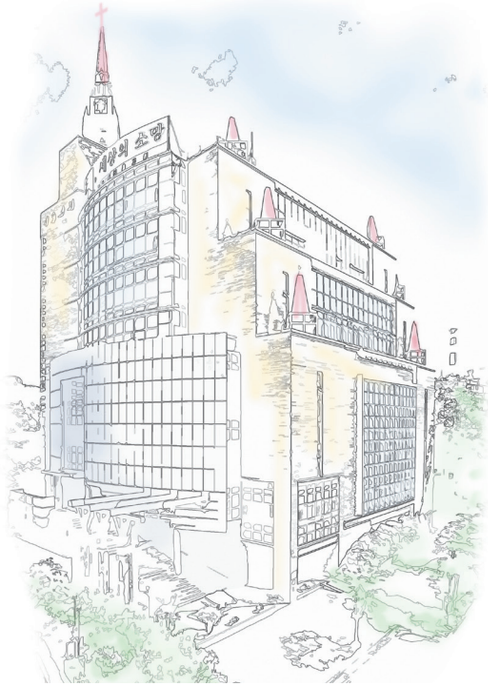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2.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막 2:27).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힐문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쉼을 얻도록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오히려 안식일의 규정에 매여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였습니다.



3.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마 12:8).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쉼을 갖되 성경적인 쉼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인 쉼이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선한 봉사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결코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거룩한 주일을 지키시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Jesus, the Lord of the Sabbath Day

(Matt. 12:1-8)

Jesus, the Lord of the Sabbath day gives us who worry it a clear answer through this text about how to keep the day of Jesus.

1. We must keep the Sabbath day holy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Ex. 20:8)

We must keep the Sabbath day holy. Keeping it holy helps us remember Jesus Christ' salvation, love, grace, blessings, and it explains the Sabbath and rest. The Jews enact 39 regulations that they should not do on the Sabbath day. And then according to each regulation they made 6 detailed provisions that became all 234 rules that they should obey on the Sabbath day. The Jews at first made these regulations to keep it holy. Nevertheless, these regulations unconsciously became a way of condemnation.

2. The Sabbath day is made for us

"Then he said to them,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not man for the Sabbath" (Mark 2:27).

In the text when Jesus disciples went through the grain fields on the Sabbath because they were hungry, they began to pick some heads of grain, and ate them. The Pharisees saw this, and said to Jesus, "Look, your disciples are doing what is unlawful on the Sabbath." At that time Jesus said to them, "You greatly misunderstood God's intention and purpose on which God gave you the Sabbath day." It means that the Sabbath is made for man, not man for the Sabbath day.

We are allowed on the Sabbath day to worship God and take a rest. Nevertheless, the Jews were so tied up the regulation that they lost the original purpose. Just as man was made for the Sabbath, they lost the original meaning.

3. Lord of the Sabbath day is Jesus

"For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bath day" (Matt. 12:8).

Though the Sabbath day is made for us, the Lord of the Sabbath is Jesus. Therefore, if we take a rest on the Sabbath day, it should be a biblical rest. The biblical rest means that we worship God, praise God's grace as much as you like, render a good service, and serve the church of Christ's body.

My beloved Christians,

What we need to keep the day of the Lord holy is based on the Bible. However, even though there are some people different from us, we do not condemn them, but we should love and comprehend them. By worshipping and praising God as much as you like, keeping the Sabbath day holy, and glorifying God.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God's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간호사관학교 제54기 기독생도 졸업 및 임관 파송예배

- 2월 18일(화) 오후 7시, 간호사관학교 국군 믿음교회-

간호사관학교 제54기 기독생도 졸업 및 임관 파송예배가 우리교회 주관으로 2월 18일(화) 오후 7시에 대전에 위치한 간호사관학교 국군 믿음교회에서 거행된다. 예배 시에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졸업생들을 위한 선물과 참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졸업 및 감사예배에는 기독생도 졸업생 40명과 재학생 40여명, 내외빈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일 오후 3시 30분 교회에서 버스로 출발한다.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 중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 21(금)~23일(주)

중등부: 20일(목)~22일(토) / 신혼가정공동체 : 22일(토)

겨울성경학교·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 중이다. 금주는 교육 1국(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21일(금)~23일(주)에 교회에서 열린다. 중등부는 20일(목)~22일(토) 아가페타운에서 노정호 목사를 강사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제로 열린다. 신혼가정공동체는 22일(토) 서준권 목사를 강사로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주제로 교회에서 열린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 드린다.

사진 : 손동혁 집사

서울강남노회 장로회 월례회

2월22일(토) 오후3시, 웨스트민스터 홀

서울강남노회 장로회 월례회가 우리교회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2월22일(토) 오후3시에 열린다.

이날 월례회에 우리교회 박노철 담임목사는 설교를 하고, 예배 후 회무처리와 윷놀이 대회, 교제와 만찬의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기독교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교회와 공동체 모임에서 예배 및 예식, 장례, 기도, 회의, 교회생활에 대한 바른 기독교 용어 사용을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기독교 용어연구위원회'를 구성, 교회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 속에 비성서적, 비신학적, 비기독교적 낱말과 술어등을 조사하여 86회, 87회 총회에서 가결하여 모든 교회가 바른 용어들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우리 교회도 바른 기독교 용어들을 연재한다.

(편집부 주)

<예배, 예식과 관련된 용어>

9. 준비찬송 -> 사용불가

찬송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곡조가 있는 시이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곡을 붙인 성도들의 경배의 표현이며, 기도이며, 때로는 성도들의 신앙고백과 결단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의 응답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열심히 찬송 부르는 것을 성도의 바른 자세로 알고 찬송을 열심히 부른다. 그러나 이렇게 찬송의 생활이 습관화 되다보니 때때로 찬송의 목적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준비찬송"이라는 말에서 찾아보게 된다. 교회에서 "다같이 준비찬송을 부르면서 앞자리부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할 찬송을 자리를 정돈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말은 분명 잘못 된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을 시간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나 자리를 정돈하는 데 필요한 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준비찬송"이라는 용어는 마땅히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19)

(문 119) 선하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용납하십니까?

(답) 역대상5:22에 의하면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이라 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저편에서 이방인들을 정복하고 승리한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 선과 악의 대결이라 할 수 있을까? 외과의사가 환자의 암세포를 그 몸에서 도려내듯 아픔과 고통이 와도 칼을 몸에 대는 것과 같은 것인가? 사회를 좀 먹는 강도, 강간범, 방화범에 대항하는 경찰력을 찬양할 수 있는가? 술주정뱅이의 폭력으로부터 그의 아내를 보호하거나 자기 아이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면서 구타하는 아버지로부터 어린이를 구출하는 것을 금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를 선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 있을까?

사탄과 지옥 권세에게 자기방어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악에게 굴복 당하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가능한 한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하고 자유와 자기방어를 위해 군대를 갖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폭력과 피 흘림으로 또는 침략자의 공격으로 잔인한 행동을 하는 공갈단에게 세상을 내어놓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가르친 자기 방어는 정당할 뿐 아니라 여리고 성의 백성을 진멸할 때 여호수아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수6:21) 신명기 20장에 있는 전쟁의 규칙은 칼을 쓸 때 정의, 공평, 친절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군인으로 부름 받은 이는 존귀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마8:5, 눅3:14, 행10:1-6, 34-35) 바울은 신실한 군인을 신자의 모델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딤후2:4) 엡6:11-17은 군인의 전신갑주를 비유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영적 무장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화평을 주러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시었습니다.(마10:34)

(다음 주 계속)

단기선교 보고

미얀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최차순 집사 (단기선교단 단장)

2014년 2월 3일부터 2월11일까지 미얀마 단기선교단원이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제로 7박 9일간의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박노철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현지에서 동참해주신 이갑진 장로님과 이재율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도우신 현지인 스태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역은 서울교회가 후원하는 22곳 교회 중 슈피타르 교회를 포함한 5곳 교회의 주일학교 사역과 블레 교회에서 우물파기 기공예배, 그리고 미얀마 신학교에서 22곳의 교회 교역자를 모시고 선교보고를 받는 일정이었습니다. 애초에 5곳의 교회에서의 350명 어린이 사역을 준비하고 갔으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6곳의 교회 약 40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 사역을 하므로 준비한 것 보다 더 크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교회가 성경책 없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기도하는 중에 계획에는 없었지만 교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66권의 성경책을 구입하여 6곳의 교회에 각 11권씩 전달하였습니다. 성경책 구입이 끝나자 현지 미얀마인 들에게는 대량의 성경책을 팔지 못하지만 한국사람 이기에 많은 성경책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사역지로 가는 길 시내 곳곳에 웅장하게 서 있는 사원들을 바라 볼 때 마치 커다란 납덩이가 미얀마인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 미얀마 인들의 바벨론 포로생활이 하루 빨리 끝났으면 하는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무지로 고집스럽게 얼룩진 조선의 땅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그 옛날 언더우드 선교사의 글귀가 떠올라 가슴이 너무나 아려 왔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환대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삶의 환경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귀중한 교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을 뿐이지만 물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 마침내 미얀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정명숙 학부모

하나님은 야곱이 위험한 순간에 늘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이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후원의 사랑으로 호산나 학교를 세우셔서 여러 모양으로 부족한 아들 딸들의 편안한 배움터를 제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호산나 학교 부모지회에서 해마다 한 번,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주일날 점심식사 제공과 식당봉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2월9일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을 뒤로 미루고 섬기는 교회예배도 불참하고 서울교회 9시 예배를 드리고 식당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정신없이 모두들 땀 흘리며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수고한다며 격려 해주시고 고마움을 표시하심에 화기애애하며 끝까지 일하는 보람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신혼가정공동체 수련회

22일(토), 10시-1시 . 603호

"결혼예식에 담긴 성경적 의미"/강사 : 나희수 목사

나희수 목사 약력

- 미국 시카고 Trinity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졸업
- 미국 덴버 Denver Baptist Seminary 상담학 박사과정 이수
  現) 한국심리상담훈련원장
  現) 한국선교사목회자상담센터장

신혼가정공동체 수련회 후속모임

2월 23일(주일) - 3월23일(주일), 5주간

오후 3시 30분~4시 50분 , 101호 / 한선화 목사

"성경적 결혼과 가정 & 자아상의 회복"

한화선 목사 약력

- 서울장신대학교 신학과 졸업(Th.B)
- 서울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서울장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목회상담학 전공(Th.D)
- 안양제일교회 가정사역부 전담 목사 역임

겨울수련회

숨겨진 우상을 버리고

박형수 집사
(중등부 부장)

할렐루야!!

중등부 겨울수련회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요 5:8)는 주제로 2월20일부터 22일까지 아가페타운에서 열립니다.

뜨거웠던 지난 여름, 등짐을 지고 전도자요 순례자의 길을 경험했던 시간들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겨울 수련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삶을 통해 꽃씨 같은 삶을 살자는 커다란 도전 속에서 이번 겨울수련회가 우리 중등부 영혼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준비된 영혼의 시작을 알리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정호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함으로 우리 중등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되고 생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굳건히 세워가는 수련회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새 학년을 맞이하는 학생들에게 공동체 훈련과 조별 성극 발표회,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막과 구약적 제사 체험의 즐거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등부 학부모 여러분! 좋은 성적과 안정적인 직장이 드라빔과 같은 우리의 '숨겨져 있는 우상'이 되어가는 세상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과 삶의 비전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중학생 자녀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시민양성 – 유치부

BBS 선생님을 찾습니다

윤동수 집사
(유치부 부장)

유치부 연령대인 6,7세 아이들은 스폰지 같은 흡수력을 갖고 있습니다. 엄마가 무심코 던진 말도 어느새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고, 양말을 벗어 던지는 아빠의 습관을 이들은 금방 따라 합니다. 새하얀 스케치북 같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려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TV와 스마트폰에 우리 아이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녀들에게 말씀과 재미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실 수 있는 슈퍼 맘&대디는 현실에는 없습니다.

유치부가 올해 3월부터BBS(Biblio Bible School)을 시작합니다. Biblio는 '책'을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BBS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상상가능한 것들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12시에 마치는 10주간 계속되는 프로그램입니다. 3월 8일(토)에 시작합니다. BBS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성경 속 인물과 자신을 동화시키는 체험을 하며 자신감과 성취감, 상상력과 통찰력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평생 신앙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형성해 줄 것입니다.

BBS프로그램이 선생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또래의 아이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자격조건입니다. 토요일 오전을 희생하셔야 하는 각오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커가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진 : 손동혁 집사

한가정한선교사 후원자 명단

임충식 김상식 박경주 박동률 김광욱 홍석현 최지욱 최주하 김성주 최광성 차인화 채혜숙 최성옥 정지예 노영석 민의랑 최광필 이순형 이상섭 강석조 제2권사회 마리아전도회 사라전도회 한나전도회 진교남 조웅기 김철진 전인상 이복규 3-7 다락방 배재송 이인향 강홍래 김성준 13-16 다락방 이진명 신성균 송재현 정춘혜 스데반회 오윤걸 김은초 김은빈 김은송 이유성 제1권사회 우현주 김원중 김성은 이정수 박미현 우승희 박동우

(다음 주 계속)

비전2020운동 후원자 명단

우현주 장예성. 고석태(장효정) 우승희(박형민) 정현구 최복희 정진영 정일윤 정아영 이응선(박순봉)

(다음 주 계속)

농어촌100교회

황선희 원명희 스데반회 한나전도회 배옥선 전인상 송재현 선순례 김성준 김선영 강홍래

(다음 주 계속)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8일(화)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광주, 전남지역연합회 창립총회 격려사와 특강을 한다. 19일(수) 장로교한교단다체제 가입결의 교단총무(사무총장)간담회를 소집한다. 20일(목) 한국군선교연합회43차총회 참석한다. 21일(금) 고 김상철장로기념사업회 공동회장단 모임을 소집한다.

■ 주간식당봉사 : 빌립선교회 도르가전도회(2.16)
안드레선교회 루디아전도회(2.23)

■ 금주의 식사 : 오영자 권사 가정 (생일을 감사드리며)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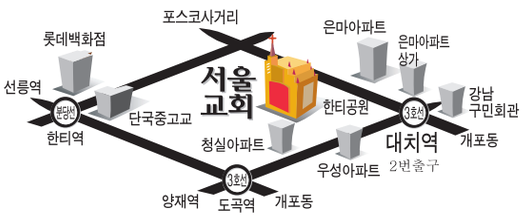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육 1국 겨울성경학교, 중등부 겨울수련회, 그리고 신혼가정공동체 수련회에 큰 은혜가 임하도록
2. 화요일에 있는 간호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 파송 예배를 통해 비전 2020의 성취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3. 미얀마에 뿌려진 사랑과 복음의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힘 있게 확장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Ⅰ,Ⅱ,Ⅳ 층
	Ⅱ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Ⅲ 층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Ⅱ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